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7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가 역사적인 해리먼 단체 캠프에 대한 1,400만 달러 규모의 재생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수 세대 동안 아동들과 미혜택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캠프는 인프라와 여가 활동 관련 개선 조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해리먼 주립공원에 있는 국내 최초이자 가장 오래된 야외 하계 단체 캠프를 재생하기 위해서 1,4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1913년에 처음 건립된 이 37개의 야외 단체 캠프 시설들은 혜택 받지 못한 지역의 아동들에게 야외를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되었지만, 수십 년 동안 상태가 악화되면서 황폐화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NY Parks 2020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제공되는 자금 덕분에, 한참 전에 행해졌어야 할 인프라 및 여가 활동 관련 개선 조치가 이제야 완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먼 단체 캠프는 오랫동안 혜택 받지 못한 지역의 뉴욕 청소년들 상당 수가 처음으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이 캠프는 향후 세대들이 뉴욕의 유산 중 이 훌륭한 일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조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NY Parks 2020 자금에서 제공되는 1,400만 달러는 물 공급 복구, 새롭고 개선된 유틸리티, 건물 및 지붕 수리, 도로 및 오솔길 재건, 그리고 폐수 처리 시스템 현대화 등과 같은 중요한 인프라 개선 작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추가로, 수영, 낚시, 카누 및 카약 등의 인기 있는 캠프 활동을 강화하고 다시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새로운 접안시설이 설치될 것입니다.

각 캠프는 오두막집, 텐트 설치장, 식사 공간, 레크리에이션 건물, 편의시설 및 워터프런트 시설이 갖추어진 소규모 캠퍼스로 구성되며, 이 모든 것은 해리먼 주립공원 전역에 걸쳐 흩어져 있는 호수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13년에 캠프가 만들어진 이래, 이곳에서는 500건이 넘는 하계 캠프를 주최하고,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2015년에는 37,000명 이상이 해리먼 단체 캠프를 방문했으며, 이 시설을 이용해서 150,000일 이상을 보냈습니다. 이 캠프는 혜택 받지 못한 지역의 아동들에 대한 봉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7,500명이 넘는 홈리스 아동들이 캠프에서 각각 5일 동안 보내면서, 야외를 돌아다니고, 자연에 관해 배우면서, 아웃도어 체험을 했습니다.

주립공원 커미셔너 **Rose Harv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계 단체 캠프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며, 자연에 접하기 어려운 많은 지역사회에 야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려는 생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Cuomo 주지사와 그의 NY Parks 2020을 통한 투자 덕분에,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보다 잘 지속할 수 있도록 이 시설들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ppalachian Mountain Club과 같은 조직 및 파트너들이 수천 명을 초대해서 이 캠프를 활용하고, 그들이 즐기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즐기게 만들 수 있도록 구축할 기초를 구비하도록 기본 인프라 복원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공원 및 팰리세이즈 주간 공원 위원회(Palisades Interstate Parks Commission)는 기본 인프라를 지원하며, 아울러 캠프를 운영하고, 교통편을 제공하며, 캠프 이용자들의 필요 사항을 보살피고, 일정한 경우에는 캠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 자금을 제공하는 다양한 민간 파트너들에게 캠프를 임대합니다.

팰리세이즈 주간 공원 위원회 상임 디렉터 James H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 많은 조직들이 자연에 접하고, 이 캠프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해서 해리먼 단체 캠프에 의존해왔습니다. 이 캠프들은 현재도 여전히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Cuomo 주지사와 이 지속적인 투자 덕분에, 캠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150만 달러 규모의 복원 공사를 거쳤고, 브레이크넥 폰드를 바라보는 임대된 단체 캠프인 해리먼 아웃도어 센터를 최근 개장한 Appalachian Mountain Club (AMC)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인프라 재건이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AMC는 자금을 제공해서, 수많은 오두막과 단체 숙소, 식사 공간 및 캠프 사무실의 외장과 내장을 완전히 재단장했으며, 추가로 캠프의 자연적이고 야생적인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옥외의 야외 파빌리온도 설치했습니다. 접안시설과 소형 수영시설도 복구되었습니다. 재단장된 캠프는 현재 스카우트 활동, 학교, 종교단체 및 청소년 단체는 물론이고 가족 상봉 및 기업 야유회 등과 같은 일반 대중 및 대규모 단체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다양한 야외 프로그램을 주최할 것입니다.

Appalachian Mountain Club 회장 겸 CEO John D. Judg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ppalachian Mountain Club은 브레이크넥 폰드에 있는 오랜 전통의 숙박 시설, 캠핑 시설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복구하게 되어 자랑스러우며, 팰리세이즈 주간 공원 위원회와 뉴욕주 주립공원이 저희에게 운영 기회를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AMC 해리먼 아웃도어 센터에 대한 우리의 중대한 투자는 NY Parks 2020 재생 계획을 이행함에 있어서 파트너십의 강점을 말해주며, 아울러 그레이터 뉴욕시 지역에서 보다 많은 성인, 가족 및 도시 청소년들이 아웃도어를 접하게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전념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성과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해리먼 주립공원에서 공공 여가활동 자원의 믿기 힘든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주 상원의원 William J. Larkin,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400만 달러는 역사적인 해리먼 단체 캠프의 미래에 있어서 필수적 부분입니다. 해리먼 주립공원은 이 캠프들에 대한 적절한 주관 기관이었으며, 특히 물 공급 복원 등 이 중요한 인프라 개선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금이 확보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가져온 지역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협력과 팀워크는 항상 긍정적 성과를 만들어내며, 저는 이 자금을 확보함에 있어서 Cuomo 주지사와 함께 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 상원의원 **David Carlucc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먼 하계 단체 캠프의 재단장을 발표함에 있어서 주립공원 커미셔너 **Rose Harvey**와 **Appalachian Mountain Club** 회장 겸 CEO인 **John D. Judge**와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로어 허드슨 벨리의 자연미를 체험하고자 하는 차세대 뉴욕 주민들이 공원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립공원이 계속 성장할 것임은 물론이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뉴욕이 환경보존의 리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함께 노력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주립공원을 옹호하기 위해서 뉴욕주 입법부에 있는 저의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주 하원의원 **Ken Zebrowsk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공원의 빈번한 방문자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록랜드의 해리먼 주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몸소 알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공원이 계속 번성하도록 보장하고, 우리 거주자들을 위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13년에 펠리세이즈 주간 공원 위원회는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야외 체험장에 갈 교통수단이 없는 아동들에게 봉사한다는 사명 아래, 해리먼 단체 캠프를 세웠습니다. 해리먼 단체 캠프는 이에 기반해서 국내의 다른 모든 단체 캠프가 설립되게 만든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캠프는 국내 최초의 자연 오솔길을 만들고, 아웃도어에 관해서 혜택 받지 못한 도시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선도했으며, 아웃도어에 대해서 평생 지속되는 경이감을 심어주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최초의 아웃도어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해리먼 주립공원은 특히 아동들을 위해 개발된 23개의 단체 캠프 시설과 가족 또는 단체 관련 활동에 제공되는 또 다른 14개의 캠프가 위치하는 고향입니다.

해리먼 주립공원은 52,000에이커의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3백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뉴욕에서 2번째로 큰 주립공원입니다. 록랜드와 오렌지 카운티에 소재하는 이 공원은 31개의 호수와 저수지, 200마일의 하이킹 트레일, 2개의 해수욕장, 2개의 공중 캠핑 구역, 수 마일의 개울과 아름다운 길, 수십 종의 야생 생물, 아름다운 풍경과 경관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야외 여가활동 시설을 개선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NY Parks 2020**은 2020년까지 민간 및 공공 자금으로 9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다년간에 걸친 약속입니다. 올해 뉴욕주는 국립공원서비스의 "Every-Kid-in-a-Park" 패스의 수락을 통해서 4학년 학생들과 이들의 가족들이 모든 주립공원과 역사적 현장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이며, 여기에서는 타이틀 원(Title 1) 학교의 학생들이 주립공원과 역사적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무료/저가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